

나는 나를 마주합니다

이희영 장편소설 『나나』





책 소개

“내가 나를 외면했다고?”

은빛 동그라미 속 서로를 마주한 두 아이. ‘나’는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마주할 수 있었을까?

작가는 누구나 상상해 봄직한 유체 이탈을, 자신을 이해하는 결정적 사건으로 활용한다. 우리는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와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처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성형이 아니다. ‘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마주 보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스스로 고민하고 탐색할 겨를 없이 아이들을 건담의 시간으로 몰아가고 있고,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한수리와 은류는 오랜 시간 스스로를 외면한 탓에 아픈 줄도 모른 채 ‘나’를 잃어 간다. 아이들의 영혼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 버린다.

아이들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서야 ‘나’를 객관화해 깊이 응시한다.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직면하게 된 두 주인공은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바라본다. 그리고 비로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찾게 된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있는 것도 ‘나’이고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것도 ‘나’이다. 『나나』는 끊임없이 주인공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한다. 선생의 “인간의 손이 왜 두 개인지 알아요? … 한 손에는 문제를, 다른 한 손에는 그 답을 들고 있거든.”이라는 대사를 통해 작가는 스스로에게 희망이 있다고 독자를 설득한다. 한수리와 은류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자신을 믿고 사랑할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며 나를 마주하고 사랑할 수 있는 법, 나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찾아 가기를 바란다.



수업의 초점

1. 공감을 통해 ‘나’ 이해하기

한수리와 은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의 전형적인 모습일지 모른다. ‘나’를 외면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이다. 공감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두 인물의 입장에서 줄거리를 요약해 보고, 두 인물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해 보자. 나아가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공감해 보자.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활동을 통해 두 주인공에게 이입해 보고, 나아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지해 보자. 이러한 공감의 축적은 자신을 사랑하는 발판이 된다.

2. 행복의 주관성 깨닫기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나'다운 것을 생각해 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청소년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지만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행복의 주관성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기는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나'를 외면하는 경험이 축적된다면 나의 현재와 미래는 과연 행복할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공감하는 내용과 공감하지 않는 내용, 흥미로운 내용을 정리하는 '질문 만들어 토의하기' 활동으로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공감의 범위를 확장해 보자. '행복한 순간 상상하기' 활동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소소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해 보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도록 지도해 행복의 주관성을 내면화할 수 있다.

차시	활동		비고
1	읽기 전 활동	[활동 1] '영혼이 없다'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활동 2] 나의 영혼 들여다보기	개인, 모둠 활동
2	읽기 중 활동	[활동 1] 내 마음에 저장하기	개인, 모둠 활동
3		[활동 2] 3막 구조로 줄거리 요약하기	개인 활동
4		[활동 3]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개인 활동
5		[활동 4]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기	개인 활동
6	읽기 후 활동	[활동 1] 질문 만들어 토의하기	개인 활동
7		[활동 2]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	개인 활동
8		[활동 3] 행복한 나 상상하기	개인, 모둠 활동



●●● 읽기 전 활동

| 1차시 |

활동 1 '영혼이 없다'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1.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경우와 들은 경우를 떠올려 보며,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 책에 나오는 표현을 살피며 궁금증을 유발하는 활동이다.

Blank area for student response to activity 1.

활동 2 나의 영혼 들여다보기

2. 나의 영혼에 색이 있다면 어떤 색일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자.

- '나'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 스스로를 색에 비유하며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Blank area for student response to activity 2, containing the text: 내 영혼의 색은 ()다. 이유는 ()다.

3. 나의 영혼이 사라진다면 나에게 생길 변화 세 가지를 적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자.

- 책에 등장하는 사건을 겪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상상해 보며 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활동이다.

- 나다움이 사라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지도한다.

Blank area for student response to activity 3.

●●● 읽기 중 활동

| 2차시~5차시 |

활동 1 내 마음에 저장하기

1. 내 마음에 저장할 구절에 밑줄을 그으며 읽어 보자.

- 마음에 드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책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단어와 감상평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읽은 날짜 월 일	밑줄 친 구절	면	마음에 저장하고 싶은 구절
읽은 면수 면 ~ 면	떠오르는 단어		
	한 줄 감상평		

읽은 날짜 월 일 일	밑줄 친 구절	면	마음에 저장하고 싶은 구절
읽은 면수 면 ~ 면	떠오르는 단어		
	한 줄 감상평		

읽은 날짜 월 일	밑줄 친 구절	면	마음에 저장하고 싶은 구절
읽은 면수 면 ~ 면	떠오르는 단어		
	한 줄 감상평		

활동 2 3막 구조로 줄거리 요약하기

2. 아리스토텔레스의 '3막 구조'를 참고해 두 주인공의 입장에서 줄거리를 정리해 보자.

- 이야기를 요약해 보는 활동이다.
- 두 주인공이 가진 결핍을 생각해 보고, 어떤 시련과 고비를 겪고 어떤 선택을 통해 성장했는지를 요약하도록 지도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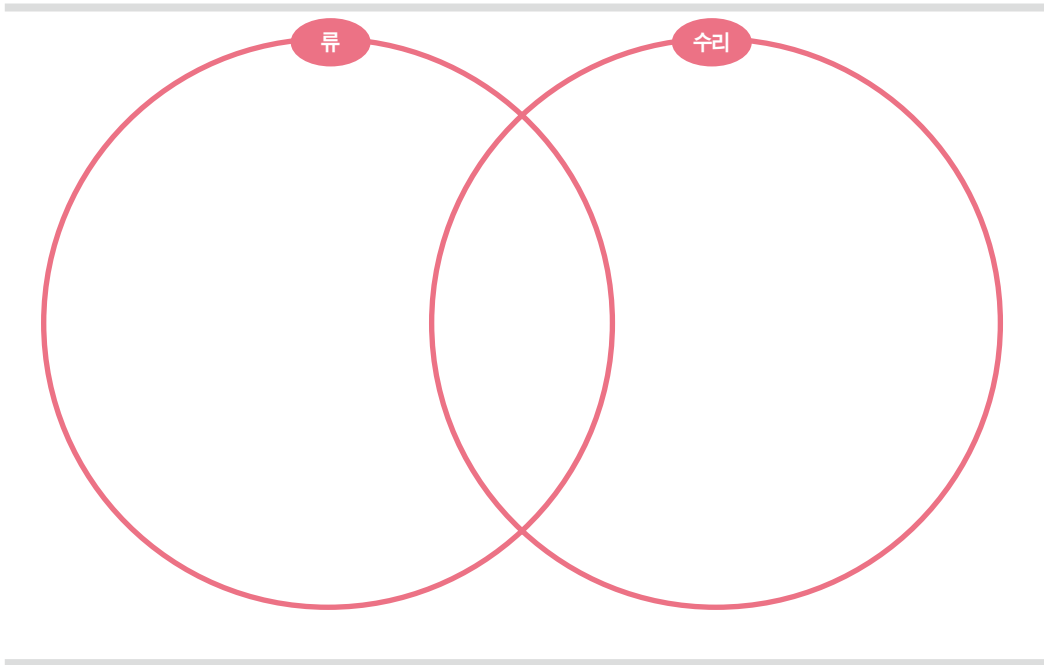
처음: 결핍을 가진 주인공의 상황
중간: 시련과 고비를 겪으며 결정적 선택의 기로에 놓임
끝: 주인공이 변화, 성장함

순번	한수리	은류
1막		
2막		
3막		

활동 3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3. 한수리와 은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는 활동을 통해 인물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다.
-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서 주인공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어렵고 힘든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4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기

4. 각 장에서 인물의 감정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적고, 주인공이 느꼈을 감정에 공감하는 활동을 해 보자.

- 공감하는 활동을 통해 인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다.
-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지도한다.

걱정되는	고마운	뿌듯한	만족스러운	서운한	희망찬
미안한	설레는	화나는	무기력한	부러운	흐뭇한
긴장되는	괴로운	초초한	짜증나는	흥기분한	두려운
신나는	감사한	절망적인	감동적인	외로운	막막한
편안한	후회하는	억울한	슬픈	즐거워	불안한
난처한	섭섭한	답답한	겁나는	자랑스러운	기대되는

장	제목	감정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 요약하기	감정	해 주고 싶은 말

활동 1 질문 만들어 토의하기

1. 책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 공감하지 않는 부분, 흥미로운 부분을 정리해 보자.

- 공감하는 부분, 공감하지 않는 부분, 흥미로운 부분을 적으며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 '해당 부분 소개하기'는 간략히 작성하고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소개하기 (요약 또는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기)	이유
공감하는 부분 또는 좋았던 부분		
공감하지 않는 부분 또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흥미로운 부분		

2. 1번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눠 보자.

- 토의 질문을 만들고 모둠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다.
- 친구들이 만든 다양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토의 질문 만들기]		
왜, 어떻게, 무엇이, 만약에 등을 넣어서 의문형으로 만들어 보자.		
공감하는 부분 또는 좋았던 부분	나의 질문	나눈 생각
공감하지 않는 부분 또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나의 질문	나눈 생각
흥미로운 부분	나의 질문	나눈 생각

활동 2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

3.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세 개의 핵심어로 표현하고, 선정 이유를 적어 보자.

- 독서 활동 및 토의 활동 후 책이 주는 의미를 정리하며 배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활동이다.
- 세 개의 핵심어가 자신의 삶에 주는 의미를 토대로, 선정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핵심어	선정 이유

활동 3 행복한 나 상상하기

1. 『나나』의 작가의 말과 다음 시를 읽고 나의 행복한 순간을 묘사해 보자.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 행복의 주관성에 대해 경험해 보는 활동이다
- 시 「행복한 날」을 읽고 시적 화자처럼, 떠올리면 웃음이 계속 나오는 행복한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도록 지도한다. 개별 활동, 모둠 활동, 전체 공유의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요사이 며칠간 좀 멍했다. 이탈한 내 영혼에게 선령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다. 괜스레 몸과 마음에 한기가 느껴지면, 혹시 또 모를 일이다. 여러분의 곁에도 영혼 사냥꾼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는지도,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 더 내면으로 돌리길, 지극히 주관적인 자신만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작가의 말」 중에서

행복한 날

문현식

떨리는 마음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웃음이 계속 나와서
웃으면서 잤다

『오늘도 학교로 로그인』 (창비 2021)

나의 일곱 가지 행복한 순간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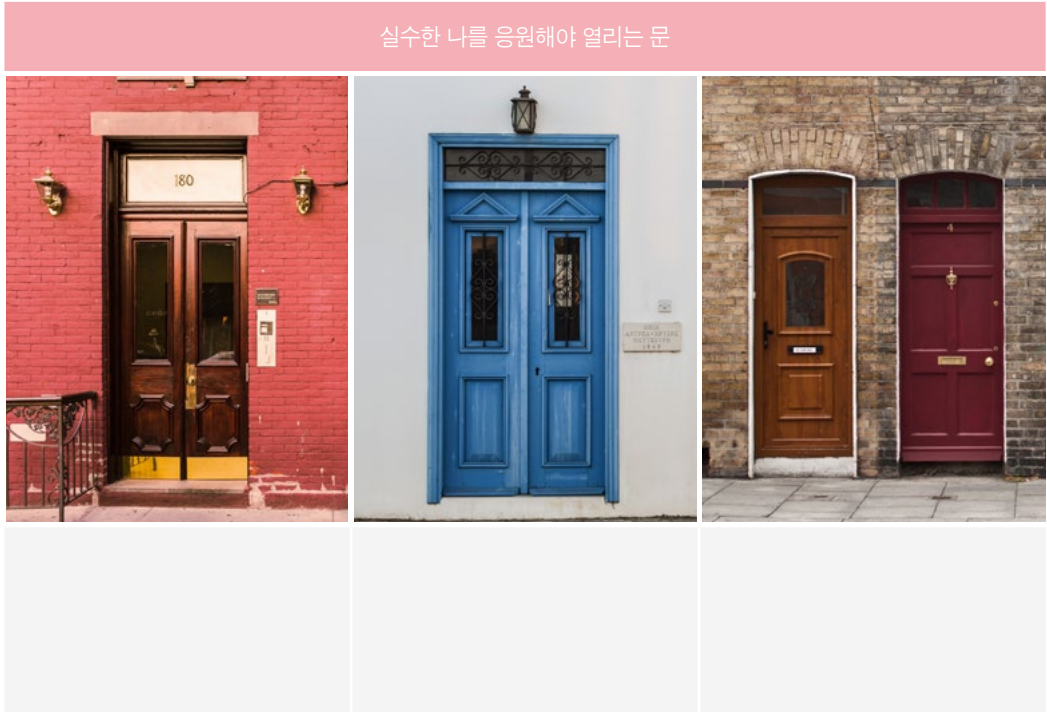
6

7

2. 어떤 이름의 문을 열면 나의 영혼이 단단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 나를 사랑하는 법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 각자의 상황에 맞게 문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3. 내 영혼에 주파수를 맞춰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자. 다음 시를 읽고 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고 퍼즐을 완성해 보자.

- 시를 읽고, 각자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등)을 적어 마음의 퍼즐을 완성하도록 지도한다. 작성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서로 응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내 영혼에 주파수 좀 맞춰 보라고. 내가 아무리 선령이지만 그 마음의 주인보다야 잘 들을 순 없거든”
그가 걸음을 옮겨 복도 벽 너머로 사라졌다.
“내 영혼의 주파수?”

—『나나』 75면



흘리지 마라

오은

밥을 흘리지 마라
땀만 흘려라

밥을 다 먹을 때까지는
웃음을 흘리지 마라

눈물을 흘리지 마라
피땀만 흘려라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는
정보를 흘리지 마라

널 꺾는 친구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흘리지 마라

선불리 비밀을 흘리지 마라
차라리 거짓말을 흘려라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침을 흘리지 마라
어른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글씨를 흘리지 마라

돌아오는 길에는 늘 뒤를 살폈다
나도 모르게 흘린 것이 없는지
흘리기도 전에 흘려 버린 것은 없는지

콧물이 말라 버린 인종처럼 허전해졌다.

어딘가 마음을 흘렸는데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마음은 없었다.

마음을 흘린 곳으로
꿈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뽀뽀 흐르고 있어서
핑핑 흐르고 있어서

그쪽으로만 자꾸만 기울어지고 있었다.

『마음의 일』 (창비교육 2020)

❖ 더 읽을거리

『커다란 질문』 (베들북 2004)

볼프 에를브루흐

“나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건가요?”

책 표지에서 웃고 있는 아이가 묻는 듯한, 하지만 정작 책 속에서는 한 번도 제시되지 않는 이 질문에 다양한 이들이 대답해 준다. 형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고양이는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비행기 조종사는 구름과 입맞춤하기 위해서……. 형식상으로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있지만, 정작 답변의 내용은 각각의 ‘존재’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이 책을 통해 볼프 에를브루흐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유도한다. 하지만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책의 맨 뒷장에 그려진 빈 노트는 저자의 이런 생각을 아주 잘 드러내면서도 책이 주는 메시지를 극대화시켜 주는 장치이다.

에를브루흐는 세상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뚱뚱한 아저씨, 숫자 3, 군인, 죽음, 바위, 빵집 주인, 오리 등 생물, 무생물, 심지어 형이상학적 존재들까지 이 ‘커다란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세상 모든 것들은 형태와 성격을 불문하고 나름의 존재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중략)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존재의 이유. 하지만 절대로 비껴갈 수 없는 이 화두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던져주는 책 『커다란 질문』. “내가 왜 세상에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조금 어렵다면 이 질문을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뭔가요?”, “오늘 제일 즐거웠던 일은 뭐였나요?”라고.

- 출판사 서평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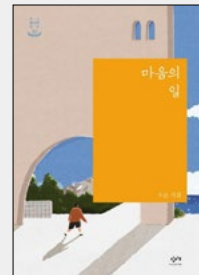
『마음의 일』 (창비교육 2020)

오은

“장래는 아직 멀고 희망은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오은 시인이 헤아리는 그 시절의 ‘마음’

『마음의 일』은 오은 시인의 첫 청소년시집으로, 총 40편의 시가 담겨 있다. 청소년들의 예민한 감성과 복잡다단한 심리를 섬세한 필치로 꼼꼼히 짚어내는



시편들이 누가 읽어도 공감을 자아내며 그 시절의 내 마음을 코앞으로 불러온다. 그래서 『마음의 일』은 청소년은 물론, 여전히 자라는 중인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시집이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시시각각 표정이 바뀌기도 하고, 텅 빈 상태가 되기도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진다. 때로는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자라 /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어른이 된다”는 끔찍한 사실에 “문득 어른이 되는 일이 아득하게 느껴”(『언제 한번』, 36쪽)지기도 한다. 그렇게 언젠가는 어른이 될 것이며,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생각해 보기도 할 것이다. 시인은 청소년들이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며 행여나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들에게 “장래는 아직 멀”지만 “희망은 어딘가 있을 것”(『장래 희망』, 28쪽)이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누구나 적어도 하나는 잘하는 게 있을 것이며 “그것은 아주 중요”(『하나』, 33쪽)한 일이다.

장래는 슬몌슬몌 다가오는 것이었다가
느닷없이 닥쳐오는 것이었다가
아직은 아니라고
불투명할 만큼 멀리 있다가
멀리 있어서 약속되거나 기대되기도 했다

희망은 보이는 것이었다가
순식간에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가
그래도 다시 품으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지기도 했다
—『장래 희망』 부분

하지만 시인은 장래 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넌지시 일깨운다. … 이 시집을 읽는 모든 이들이 “안에서 스스로 달아오르는 시간”(『냄비』)을 가다듬고 한껏 “자유로운 나”(『졸업』)가 되어 ‘자라서 내가 되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출판사 서평 중에서